

교회:

부서:

이름:

예수교사도의신앙교회 출판부

청장년부 공과

제 16 권



<청장년부 공과 제 16 권>

주제: 그리스도인의 성장

공과	제목
제196공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속에 계시는 예수님
제197공과	성도의 성장
제198공과	성도의 성공
제199공과	성도의 결단
제200공과	오염을 피하라
제201공과	마귀를 다루는 법
제202공과	군중심리에 이끌리지 말라
제203공과	자원해서 섬김
제204공과	개인적인 시련들
제205공과	스트레스 처리
제206공과	신실한 청지기가 되라
제207공과	자아훈련(자아통제)
제208공과	결과를 내다보라

들어가면서

그리스도인의 성장은 삶의 문제들과 선택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실천했던 결과입니다. 성경에서 발견되는 교훈이 가치있는 이유는 우리가 직면한 일상적인 생활에 성경말씀을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성장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는 16권을 공부하면서 배우게 될 핵심 주제입니다.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이자 구원자로서 신뢰하고 그분께 순종하는 것이 제일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님 앞에 늘 서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성장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 발전과 성장에 필요한 방법과 수단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교훈을 기초로 우리는 의사결정,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 육체적이고 영적인 오염을 피하는 것, 자기 훈련, 개인적인 문제를 다루는 방법 등 구체적인 영역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배울 것입니다.

16권은 학생들의 행동과 선택들로 인해 그들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것인가 결정짓는 요인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할 것입니다.

이번 분기의 목표는 학생들이 바울처럼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로마서 8:37)’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제196공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속에 계시는 예수님

성경본문: 요한복음 15:1-9 ; 에베소서 3:14-21

요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요한복음 15:4)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마지막 말씀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 28:20)이셨다. 육신의 눈으로 그를 보지는 못할지라도 우리는 삶 가운데서 그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확신할 수 있다. 오늘본문인 에베소서의 초점도 이를 중요시한 것이다. 바울에게 있어 성도의 삶의 본질이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었다. 이는 또한 우리의 천국 소망의 기초이기도 하다! 바울은 이를 “영광의 소망이신 너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 라고 표현했다.

1. 우리 삶 속에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요한복음 14:23 ; 사도행전 3:19 ; 요한계시록 3:20 을 참조하라.

2. 성령으로 거듭난 마음속에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시면 그분이 계속 우리와 함께 거하시도록 우리는 주의해야 한다. 요한복음 8:31절에 “너희가 내 말에 계속(흠정역 성경) 거하면 ,,,, 되고” 라고 하였는데 이 말씀의 본문문맥 속에서 “계속” 이란 단어가 갖는 의미를 설명해 보라.

3. 예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며 따르는 일을 “계속” 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함께 하여주심으로 오게 되는 축복들을 열거하여 보라.

요한복음 14:27

요한복음 15:11

사도행전 1:8

요한일서 5:14,15

4. 바울과 요한은 우리와 주님과 관계를 “친교관계”로 나타내고 있다(고전 1:9 ; 요일 1:3). 당신은 성도간의 친교를 어떻게 보는가?

5. 그런데 어떤 경우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심을 느낄 때도 있다. 우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알 수 있는가?(고후 5:7, 히 13:5)

6. 마태복음 18:20절과 디모데후서 4:14-17절 사이에 나타나는 상황은 서로 다르다. 그럼에도 두 곳 다 주님이 계셨다. 그 두 곳의 상황을 묘사해 보고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을 적어보라.

7. 하나님은 모든 상황에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다음의 성구를 찾아보고 각 구절들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해주셨는지를 설명해 보라.

시편 46:1

이사야 43:2

마가복음 13:11

히브리서 4:15,16

8.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심으로 나타난 결과들을 설명해 보라(행 4:13, 5:1, 13:33)

9.복음을 확장키 위하여 제자들은 온 세상 각처로 가야만 하였다. 주님은 이 일을 어떻게 이루셨는가?

10.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성도에게는 장래 어떠한 소망이 있는가(요 14:3 ; 고전 13:12 ; 살전 4:17 ; 요일 3:2).

제197공과 성도의 성장

성경본문: 베드로후서 1:1-11, 3:17,18

사무엘상: 2:26, 3:1-21

요절: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2:1,2)

영적 성장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만 가능하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약속들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여 그의 나라의 일원이 되고자 하는 우리의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준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행하고 결정할 때마다 이 약속들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평강과 은혜를 더하실 때마다, 그 모든 신앙의 아름다운 덕들도 더욱 자라게 해 주실 것이다. 은혜 중에 성장하여 주님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감도 실상은 이런 일의 결과이다. 그러므로 이런 신앙적인 목표를 이룸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자.

1. 오늘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는 “은혜 중에 자라감”에 관하여 쓰고 있다. 영적 성장의 출발점은 무엇인가?

2. 거듭난 자들의 마음속에는 베드로후서 1:2절에 언급된 두 가지가 있게 된다. 그것들은 무엇인가? 또 이 둘은 영적 성장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롬 5:1).

3.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어디에다 우리 믿음을 고정시켜 놓아야 하는가? 그렇게 하는 방법은 무엇인가?(히 12:1-2)

4.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 건축과 성장을 도와주신다. 오늘 본문에서 그 도움들이 무엇인지 적어보라(벧후 1:4).

5. 사도 베드로는 믿음에다 7가지 덕들을 더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각각의 영적 의미를 정의하여 보라.

6.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속에 더해질 때 어떤 결과가 오게 되는가?

7. 만일 이런 덕들을 더하는 일에 힘쓰지 않을 때 그 영적 상태는 어떻게 될 것인가?

8. 에베소서 4:13-15절을 참고로 하여 당신의 영적 성장을 위한 목표를 세워 보라.

제198공과 성도의 성공

성경본문: 역대하 26:1-15 ; 시편 37:3-11

보조성경: 딤후 4:6-8

요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 1:8)

“성공”이란 말의 의미는 다양하다. 어떤 이는 직장, 친구, 가족이 있고 또 충분한 재산도 있어서 세상에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상태를 성공이라 본다. 또 어떤 이는 남보다 뛰어난 미모, 재능, 지성, 육체미 등을 갖추는 것을 성공이라 본다. 요즘엔 인기, 명성, 영향력, 정치력 및 남다른 독보적인 창조력을 가져야 성공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도 과연 그러할까? 그런 성공은 세상적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성공은 영원한 것들이다. 곧 영원치 못한 것들은 참 성공이 아니다! 솔로몬은 이생에서 온갖 분야에 성공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참 성공이란 이생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님을 발견했다(구약성경의 전도서를 읽어 보라). 우리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영원히 지속되는 것들을 성공으로 보고 이를 추구해야 할 것이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 간에 심판하시리라” (전도서 12:13,14)

1. 웃시야 왕이 그의 통치초기에 성공한 요인들은 무엇이었는가? 두 가지를 적어보라. 그리고 웃시야의 예를 오늘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마 7:7,8).

2. 하나님은 웃시야가 원수들을 이기도록 해주시고 그 결과 전쟁무기들과 많은 유익한 정보와 가축들과 포도원들을 얻게 하심으로 성공하게 하셨다. 이런 것들을 오늘의 우리 성도의 성공과 비교해 보라(눅 10:9 ; 엡 6:13-17 ; 빌 4:19 ; 요일 1:7).

3. 시편 37편을 기록한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믿는 자들에게 순경이나 역경과는 상관없이 임한다는 사실을 보여 주었다.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자, 곰, 골리앗 거인 장수를 이겼고, 또 다른 많은 상황에서도 승리를

거두었기 때문이다. 이는 다윗이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고 의지한 연고였다. 이와 비슷한 당신의 이야기나 혹은 다른 이의 이야기를 적어보라.

4. 다윗은 나중에 많은 핍박으로 범죄자처럼 쫓기는 신세가 되었다. 그러나 그런 환란을 통해 다윗은 참 성공에 이르는 도움을 얻게 되었다. 어떤 면에서 그러하였던가?(시 37:7-11). 또 오늘날 낙담과 실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도리어 우리의 영적 성장에 도움을 줄 수도 있는 경우란 어떤 경우일까요?(벧전 4:12,13 5:10).

5. 시편 37:3-11절 말씀은 우리 영혼과 육신에 성공을 가져오는 공식과도 같다. 그 구절들의 의미는 간단한데, 곧 사람이 할 일과 하나님이 하실 일을 말하고 있다.

6. 다음의 여러 항목들을 당신 삶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배열하여 보라.
항목 : 교육, 직장생활, 가정생활, 여가생활, 사회생활, 성경 읽고 기도하기, 운동 등.

7. 바울 사도의 삶의 목표는 무엇이었나?(빌 3:8-11). 그가 이를 얻었다고 한 확신은 어떤 것이었나?(딤후 4:6-8).

제199공과 성도의 결단

성경본문: 사사기 6:11-40

요절: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신명기 30:19)

영적 문제를 당하여 바른 결정을 내림도 성도의 영적 성장에 중요하다. 중차대한 결정들을 내릴 때 앞일을 내다보고서 내리는 경우란 드물다. 도리어 매일 깊은 생각 없이 순간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경우가 많다 그래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날마다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어떤 결정이든, 크고 작고 간에 그 결정으로 인하여 우리는 예수께로 가까이가게 되든지 아니면 멀어지게 되거나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바른 결정을 내리도록 해야 한다.

1. 기드온이 내려야 했던 결정은 무엇이었는가? 그때 잘못된 결정을 내렸더라면 어떤 결과가 오게 되었을까? (사사기 7:19-23)
2. 기드온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겠다고 결정을 내린 네 가지 근거를 적어 보라.
3. 무슨 결정을 내릴 때 이와 관계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는가? 성경을 들어가면서 적어 보라.
4. 기드온은 “양털을 바깥에다 놓았다” 이것의 영적 의미는 무엇인가? 그리고 이런 식으로 결정을 내림이 과연 바람직한가?
5. 우리가 일상적으로 내리는 사소한 결정들에도 하나님은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신다. 왜 그럴까?
6. 바른 결정을 내림에 도움을 주는 정보와 도움을 주지 못하는 정보들은

무엇인가?(시 1:1,2).

7. 당신은 매사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고 보는가? 곧 취직 문제, 학교 입학문제, 불신자와의 결혼문제, 친구 사귀는 문제, 몸에 문신을 새기는 문제 등을 한 예로 들어가면서 또 마태복음 6:33절을 참고로 해서 적어보라.

8. 당신이 과거에 했었던 결정 중 중요한 것들을 회상해 보고 그 결정을 내리기까지의 과정들을 적어보라. 혹시 중요한 것을 빼먹지는 않았던가?

제200공과 오염을 피하라

성경본문: 디모데후서 2:19-26 ; 시편 15:1-5

참고성경: 에베소서 5:27, 딤후 3:1-5, 벧전 1:22-23

요절: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 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 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빌립보서 4:8)

지금 세상은 온통 오염투성이다. 대기오염, 수질오염, 소음공해, 자연공해 등등! 환경오염은 하나의 중요 관심사다. 그러나 더욱 심각한 오염은 그 증가율이 급속도로 날로 늘어나고 있는 도덕적, 영적, 육체적 오염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는 이런 오염에 자신을 노출시키지 말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더욱 중대한 결과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곧 영혼의 영원한 상실로 나타날 것이다.

1. 고린도전서 3:1절의 진술대로 우리의 영적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오늘의 성경본문은 이와 관련하여 두 가지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 무엇인가?

2. 거듭났다면, 당신은 그리스도 교회의 일원이다. 에베소서 5:27절에서 하나님이 자기 교회 안에서 구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써보라.

3. 본 공과 서론에 사람을 더럽힐 수 있는 물리적인 오염 몇이 언급되고 있다. 그 이외에 다른 오염원들을 적어보라. 그것들을 피할 방도는 없는가?

4. 오늘 본문의 “귀한 그릇”, “천한 그릇”이란 무슨 뜻인가? 또한 사람이 어떻게 천한 그릇에서 귀한 그릇으로 변할 수 있는가?

5. “정욕”이란 “도를 넘은 지나친 욕심”이다. 성적, 탐욕, 권력욕, 명예욕, 물욕, 돈에 대한 사랑 등이 이에 포함된다. 오늘 본문에서 “청년의

정욕”에 대한 해독제가 무엇인지와 또 그것들이 해로운 이유를 적어보라 (벧전 2:11).

6. 야고보서 3:16절은 성도를 오염시키는 주범 둘을 언급하고 있다. 그 둘은 무엇인가? 그것들을 피할 방도도 적어보라.

7. 디모테전서 6:10절은 일만 악의 뿌리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그것이 위험한 이유는 무엇인가?

8. 오늘 본문 시편 15편에 하늘시민이 되기 위한 자격 11가지가 나와 있다. 그것들을 찾아 적어보라.

제201공과 마귀를 다루는 법

성경본문: 마태복음 4:1-11

참고성경: 에베소서 6:1-18

요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야고보서 4:7)

마귀는 이 세상 어두움의 왕으로서 실존한다. 마귀는 하나님과 다투며, 하나님 백성과 다툰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의 능력을 알아야 한다. 동시에 마귀와는 비할 데 없이 높으시고 절대적인 권능자이신 하나님을 알고 굳세게 의지해야 한다. 실상 마귀의 운명은 이미 결정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를 두려워 말아야 한다.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요일 4:4).

1. 마귀는 역사 이래로 사람들이 죄 짓도록 부추겨 왔다. 그는 천년왕국이 끝난 후에도 세상 거민들을 잠깐 시험할 것이다. 그 책략은 에덴동산에서 하와에게 써 먹었던 것과 비슷할 것이다. 그것을 적어보라(창 3:4-5 ; 고후 11:3 ; 딤펴전 2:14 ; 계 20:7,8).

2. 마귀가 하와를 유혹한 수법(창 3:1,4)은 광야에서 예수께 했던 그것과 비슷하다. 그것을 적어보라.

3. 마귀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무너뜨리려 하는가?

고린도후서 11:14

데살로니가전서 3:5

베드로전서 5:8

요한계시록 12:10

4. 하나님은 신자들에게 마귀의 시험을 이기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그러나 그것들은 조건적이다. 곧 우리의 순종을 요구하신다. 다음 성구들을 통해 우리 쪽의 조건과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적어보라.

에베소서 6:11

야고보서 1:12

베드로전서 5:8-10

5. 마귀와 싸워 이기려면 어떤 영적 자질을 갖춰야 하는가? 누가복음 10:19,20절과 요한계시록 12:11절에서 중요한 두 가지를 거론하고 있다. 그 외에 중요한 것도 함께 적어보라.

6. 고린도후서 2:11절은 신자가 마귀의 꾀계를 알고 주의해야 함을 보여준다. 우리가 매일 당하는 시련, 유혹, 시험, 이런 저런 덕스럽지 못한 생각 등이 하나님 혹은 마귀로부터 온 것인지의 여부를 알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약 1:13).

7. 마귀는 공중권세를 잡은 이 세상임금으로써(엡 2:2), 그의 통치 영역은 영들에 관한 영역이지 보이는 혈육에 관한 것이 아니다(엡 6:12). 사람의 영혼에 관한 하나님과 마귀와의 논쟁이 나오는 구약성경 율기서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배울 수 있는가?(율 1:7-10, 2:3-10).

8. 하나님은 천지의 모든 권세를 지니신 분이시다(마 28:18). 예수님은 마귀가 도전할 때마다 물리치셨다.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부활하심으로써 이기셨다. 우리도 믿음의 분량대로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영력으로 인하여 성령 안에서 마귀를 능히 대적하여 이길 수 있다. 당신은 이를 확신하며 날마다 승리하고 있는가?

제202공과 군중심리에 이끌리지 말라!

성경본문: 민수기 13:17-33, 14:22-24

보조성경: 마태복음 16:24-27, 로마서 12:1-2

요절: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한복음 15:19)

12 정탐꾼의 보고로 인해 이스라엘의 60만 장정들은 큰 혼란에 처했다. “누구 말을 믿어야 할꼬?” 이는 오늘날까지 많은 이들이 당면하여온 과제이기도 하다. 우리 역시 선악 간에 어느 한쪽을 따라야 하는 그런 도전에 직면한다. 그런데 그 결과를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경우처럼 너무도 비극적일 때가 많다.

1.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따랐더라면, 그들의 역사는 정반대가 됐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지 못하였다. 바르지 못한 결정을 한 무리를 따르면 그 결과가 이처럼 엉뚱해진다. 이스라엘 자손의 실패는 영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가?

2. 선과 악 중에서 선을 택하여 나가기란 항상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주변의 압력이 있을 경우 더욱 그러하다. 만일 12 정탐꾼의 보고현장에 당신이 있었다면 바른 선택을 내릴 수 있었을까? 또 이스라엘 자손이 잘못 결단한 근거는 무엇이었는가?

3. 열 정탐꾼은 “그 땅은 우리 힘으로 취할 수 없다!” 라고 보고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우리는 그 땅을 취할 수가 있노라” 고 보고했다. 결국 이 두 사람만이 그 믿음대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다. 여기서 어떤 영적 교훈을 배울 수 있는가?

4. 두 정탐꾼은 이스라엘 자손이 열 정탐꾼의 잘못된 보고로 혼란에 처해 잘못된 길을 가자 어떤 심정이었을까? 지금도 이런 일은 다반사로 일어난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두 정탐꾼과 같이 의의 편에 서야 한다. 일례로 학교에서 모두가 진화론을 믿을지라도 진실한 기독교생은 하나님의 창조설을

끝까지 고수하고 나가야 한다. 그로 인해 조롱과 비난을 당할지라도 말이다. 이와 비슷한 경우를 들어보고 그때 당했던 어려움을 진솔하게 적어보라.

5. 이러한 비슷한 시험들을 당할 때, 우리가 붙잡아야 할 성경상의 약속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빌립보서 4:13절을 읽어본 후 이 구절이 주는 도움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라.

6. 요한일서 2:15-17절의 “세상”이란 단어를 정의하여 보라. 그리고 이 “세상”과 다른 삶을 살 때 오게 되는 그 결과들은 무엇인가?

7. 예수 그리스도의 표준을 굳게 세우기 위한 영적 힘은 어디서 오는가?(시 27:1 ; 사 40:29-31).

8. 주변 사람들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의 표준대로 강력하게 나아간 성경상의 인물 하나를 들어보라.

제203공과 자원해서 섬김

성경본문: 사도행전 26:1-20

보조성경: 요한복음 21:15-17

요절: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यो” (이사야 1:19)

바울 사도는 옥에 갇혀 있었음에도 전도로서 하나님을 섬기고자는 자기 일을 끝까지 계속했다. 그는 아그립바 왕 앞에서까지 자신의 회심과 하나님의 부르심에 자신이 어떻게 응답하였는가를 간증하였던 것이다. 그것은 온전한 변화와 헌신과 희생의 표본이 될 만한 아름다운 실례였다. 우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입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에 화답해서 주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여 기쁨으로 수고하고 이로써 못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자! 그러면 우리는 장차 영원한 상급을 받게 될 것이다.

1. 바울은 왕 앞에서 이같이 간증했다. “이전의 내 삶의 목적은 예수의 제자들을 옥에 잡아넣고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난 그들에 대해 살기등등 하였지요. 그러던 내가 한 순간에 변화되고 말았습니다.” 바울을 그같이 변화시킨 것은 무엇이었는가? 또 그가 것처럼 왕 앞에서 간증한 이유는 무엇이었는가?(행 9장 참조).

2. “굴복하다” (항복하다)란 단어는 “자기주장을 단념하다, 혹은 다른 이에게 복종하다”라는 뜻이다. 이 단어와 하나님에 대한 자원하여 섬김과의 관계를 설명하여 보라.

3. 하나님의 부르심과 관련하여 성경에는 몇 가지 중요한 원리들이 나타나 있다. 로마서 11:29절과 고린도전서 9:16,17절을 읽고 이들 구절의 요점을 적어보라.

4. 오늘본문인 사도행전 26:16절에 바울이 부르심 받은 목적의 일부가 “증거 하는 것”으로 나온다. 이런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우리는 어떤 영적 체험을 해야 하는가?(행 1:8).

5.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각처로 전도 나간 제자들은 항상 기분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이리 가운데로 보냄 받은 어린양 같은 자신들을 보게 된 것이다. 의식주를 갖고 다니지도 못했고, 누가 자기네를 환영해 주겠다는 보장도 없었다. 그런데도 그들은 왜 가야만 했는가?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던가? 그들이 주께로 돌아왔을 때 어떤 태도를 보였던가?(눅 10:1,17, 22:35).

6. 자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태도는 의무감으로 마지못해 섬기는 것보다 낫다. 당신은 어느 쪽인가? 세상 사람은 “너무나도 짧은 인생이니 무엇에도 속박되지 않도록 하시오!” 라고 외친다. 그러나 이는 마귀술수이다. 시편 40:8절에 주님을 섬길 때 늘 지녀야 할 태도를 보여주는 주요단어가 하나 있다. 그 단어를 찾아 적고 적용해 보라. 그 반대되는 태도에 대해서도 묘사해 보라.

7. 때로는 복음 전파할 필요성이 크지만 그 범위가 너무 광범하여 속수무책인 것 같은 때도 있다. 그러나 우리 각 사람의 전도책임은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서 모든 일을 하라!”고 하시지 않으셨다. 다만 우리에게 특별한 일 하나씩을 하라고만 하셨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자신을 주님께 온전히 맡길 때 그 “온전한 맡김”은 어떤 것이 되어야 하는가?(잠 3:5,6절 참조).

8. 세상에서는 가난한 이들이 부한 자들을 섬기는 것을 본다. 그러나 마태복음 23:11절에서는 이와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이 말씀으로 참된 위대함의 모습을 묘사해 보라.

제204공과 개인적인 시련들

성경본문: 창세기 37:3-26 ; 시편 105:16--22 ; 베드로전서 4:12-19

요절: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의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고린도후서 4:17)

구원을 받으면 그때부터 모든 어려움들이 싹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바울 사도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계속 믿음에 거하여 있을 것을 권고하면서, 이 같이 말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란을 겪어야 할 것이라” (행 14:22).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환란을 이겨 낼만한 힘과 은혜가 하늘로부터 주어진다. 오늘 공과를 통해 우리는 요셉이 개인적으로 많은 환란과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주님의 손길이 어떻게 함께 하사 역사하셨는가를 보게 된다. 요셉의 경우는 지금껏 많은 성도들의 한 귀감이 되어 왔다.

1. 창세기 37:3-26절 가운데서 요셉이 당한 고난들을 열거하여 보라.

2. 요셉이 당한 환란들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부터 해결의 실마리가 엿보이는 것들이다. 이는 오늘의 우리와도 비슷하다. 성경말씀은 우리와 “다른 이”와의 관계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지를 제시하고 있다. 다음 성구를 보고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를 적어보라. 그래서 대인관계의 갈등이나 충돌을 미연에 예방하거나 최소화하자!

로마서 12:10

로마서 12:14

갈라디아서 5:14

갈라디아서 6:1

골로새서 3:13

3. 아버지가 “세겜으로 가서 형들의 안부를 알아오라” 고 하였을 때 요셉은 어떤 반응을 보였나? 형들이 자기를 미워하고 시기하는 걸 알고 있었음에도 요셉은 훌륭한 대답을 했다. 그것이 왜 훌륭한가? 우리는 여기서 어떤 교훈을 배울 수 있는가?

4. 창세기 37:15절에서 요셉이 또 다른 시련에 봉착한 것을 보게 된다. 그

게 무엇인가? 또 그것이 어떻게 해결되었는가?

5. 창세기 37:19,20절에 보면 형들은 요셉을 모멸하고 있다. 우리도 비슷한 경우를 당할 때가 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하는가? 그 결과는 어떠한가?(마 5:11,12 ; 뱀전 2:19,20).

6. 하나님은 그 무한하신 지혜로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시련을 허락하시기도 한다. 시편 105:16,17절에서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간 근본이유를 설명하여 보라.

7. 히브리서 12:11절에 우리가 시련과 시험을 당할 때 견디어야만 할 또 다른 이유가 있다. 그것을 쓴 후 그것의 유익을 설명해 보라.

8. 베드로전서 4:19절에는 이 교훈을 받는 자들에 관한 말씀이 있다. 그것이 무엇인지와 또 그것이 중요한 이유를 적어보라.

제205공과 스트레스 처리

성경본문: 열왕기상 18:17-46

보조성경: 다니엘 3:8-30, 뱀전 2:19-21

요절: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시편 91:2)

신실한 신앙의 영웅들은 우리 성도들과 어떻게 다른가? 성경은 엘리야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말한다(약 5:17). 엘리야를 통해 우리는 스트레스를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를 깨달을 수 있다.

1. 엘리야가 처했던 스트레스 상황 몇 가지와 그 처리에 대해 적어보라(왕상 17:1,3,7,17 . 18:17-24).

2. 3년 반 동안의 가뭄 끝에 엘리야가 아합을 만나자 하나님은 그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는가?(왕상 18:1) 또 그 약속이 즉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을 때 엘리야는 어떤 식으로 그 답답한 상황을 처리하였는가?

3. 세 히브리 소년들이 왕의 신상에 절하기를 거절한 행동에는 어떤 도덕적 속성이 들어 있는가?(단 3:16-18)

4. 예수님은 거짓 증인들의 거짓 고소를 당하셨을 때 어떻게 하셨는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고로 우리와는 달리 그 느끼신 스트레스나 고통의 정도가 경감되었던가?(뱀전 2:21-23 ; 히 4:15).

5.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이 범하는 잘못으로 비난받은 후 그 잘못을 깨닫고서 어떤 식의 반응을 보이는가? 잘, 잘못을 떠나 비난을 당하면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때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반응하여야 하는가?(뱀전 2:18.20).

6. 우리 삶속에 갈등과 긴장을 몰고 오는 것들을 적어보라.

7. 성도의 스트레스 처리법과 비교하여 불신자들의 스트레스 처리법을 써 보라.

8. 염려, 걱정, 근심이 우리를 짓누를 때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하는가?(마 6:25 ; 빌 4:6,7 ; 뱀전 5:7).

9. 삶의 위기와 시련에 처할 때 우리 성도는 어떤 자세로 대처하여야 하는가?

10. 스트레스에 굴복하면 그 결과 육체적 병에 걸리거나 쇠약하게 된다. 빌립보서 4:7,8절은 성도가 세상에서 여러 가지 억압과 긴장을 당할 때 극복할 길이 있음을 보여준다. 억압과 긴장의 여러 상황을 몇 가지 쓴 후 그 경감책들도 기록해 보라.

제206공과 신실한 청지기가 되라

성경본문: 누가복음 19:12-28

보조성경: 역대상 29:1-17

요절: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베드로전서 4:10)

오늘 본문에는 먼 나라에 갔다가 왕이 되어 돌아올 귀인에 관한 비유가 나온다. 이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교훈이다. 곧 예루살렘에 승리의 입성을 하시기 직전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일주일 못된 시기에 주신 교훈이었다. 그 교훈의 의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로 떠나가실 것과 그 후의 구령사업을 그 제자들이 수행해야 할 것과 그가 다시 오실 것에 관하여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자 함이었다. 오늘 공과의 주제도 바로 제자들의 이 청지기적인 사명과 관련된 것이다.

1. “귀인”이란 “혈통적으로 고귀한 사람”을 뜻한다. 이 비유 속에서 그 단어는 누구를 뜻하는가?(히 12:2)

2. “종”이란 단어는 “노예”, “왕의 노복”을 뜻하는 헬라어 “둘로스”에서 온 것이다. 신약성경의 서신서들에서 이 헬라어는 종종 “자신을 굽혀 타인의 뜻이나 지배에 전적으로 순복하는 자”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이를 염두에 두시고서 오늘의 성경본문의 비유 가운데 나오는 “종들”은 누구를 가리키는가?

3. 귀인에게는 열 종들이 있었다. 종마다 한 파운드(성경의 “열 드나”)씩 받았다. 이는 은사나 달란트를 의미하는데, 그 목록을 적어 보라(고전 12:4-11, 28절 참조).

4. 귀인이 열 종들에게 당부한 것은 “내가 올 때까지 장사하라”였다. 그 뜻을 설명해 보라.

5. 누가복음 19:14절과 27절에 나오는 “백성”과 “원수”는 누구를 가리키는가?

6. 누가복음 19:15절에는 귀인이 돌아와서 그 종들을 불러 어떻게 장사하였는지 조사했다고 했다. 여기서 장사하여 남긴 “이득”이란 무엇인가? 우리 각자가 주님을 섬기면서 체험한 것과 관련하여 설명해 보라.

7. 누가복음 19:20-26절에는 다른 한 종과 그의 잘못에 대한 언급이 나온다. 그 잘못을 적은 후 그 뜻을 해석해 보라.

8. 누가복음 19:17절에서는 귀인은 열 브나를 남긴 종에게 “잘했도다 착한 종아” 라고 칭찬하였다. 여기서 교훈을 얻어야겠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종으로서 천국에서 영원한 상급을 받으려면 우리의 행동은 어떠하여야 하는가? 그 뜻을 아래에 기록해보라.

제207공과 자아훈련(자아통제)

성경본문: 빌립보서 3:7-15

요절: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으니라” (잠언 25:28)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과 행동을 제어하거나 훈련치 아니하면, 예수님의 바른 제자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자기훈련은 목사, 선교사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그 본향으로 삼은 모든 신자들이 해야 한다. 그것도 날마다 해야 한다. 이는 날마다 죄와 관련된 죄된 쾌락을 버리는 것 이상을 의미한다. 그것은 날마다 주님과 주님의 일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또 자신의 영적 성장을 위해 자아를 쳐 복종시키는 등의 자기부정을 뜻하는 것이다.

1. 과식이 비만의 원인이듯, 영적으로도 세상일에 너무 치심하면 그 마음이 무감각해지기 쉬운 위험이 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눅 21:34).

2.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는 비 그리스도인의 그것과 어떻게 다른가?

3. 앞의 문장과 관련해서 이런 목표들에 이르는 수단들로는 무엇이 있는가?

4. 바울은 왜 "뒤엎것은 잊어버리노라"고 말했는가? 이 말과 "자아훈련" "과는 어떤 관련이 있는가?

5. 빌립보서 3:15절에서 바울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라고 했다. 이 말씀은 그의 자아훈련과 희생이 그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신자들에게 해당되는 것임을 보여준다. 그 뜻을 설명해 보라.

6. "하나님은 각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행하며 영적으로 자라도록 도우시리라"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도는 어떤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가?

7. 변덕, 기분에 좌우되기 쉬운 신자의 상태를 묘사해 보라(엡 4:14).

8. 어떤 목표를 이루고자 할 때에도 자기훈련은 필수적이다. “자아훈련”의 개념 정리를 지금쯤 대충 하였으리라 여겨진다. 설명해 보라. 그것과 영적 성장과의 필연적인 관계에 대해서도 설명해 보라.

제208공과 결과를 내다보라

성경본문: 골로새서 3:17-25 ; 로마서 14:21 ; 고린도전서 6:12, 10:31 ; 고린도후서 5:10, 6:14 ; 데살로니가전서 5:22 ; 야고보서 4:15

요절: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네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와 말씀과 같으니라” (신명기 6:18)

우리 일상생활은 하나님의 뜻과 부합되는 삶이어야 한다. 하나님 말씀으로 매일 우리의 언행심사를 달아보고 시험하며 조사해 보면, 우리가 참으로 날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멀어져 가고 있는 것인지를 알 수가 있다. 매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 가운데서 살면,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축복 중에 살 수 있게 된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삶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것이다.

1. 오늘 성경본문인 골로새서 3:17,23절에 의하면, 성도의 모든 행동 이면의 숨은 동기는 무엇인가? 또 이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2. 형제를 넘어지게 하거나 상처 주는 행동은 결코 해서는 안 된다. 거칠 것이나 장애물이 있으면 얼른 제거해야 함을 하나님은 바라신다. 이런 바람직한 행동 몇을 적어보라(롬 14:21, 14:19).

3. 고린도전서 6:12절은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라고 말한다. 우리의 삶에 이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4. 믿지 않는 자와 명예를 같이 하지 않기 위한 몇 가지 방법을 들어보라(고후 6:14). 성도가 불신자와 명예를 같이 하게 될 때 그 결과는 어떠한가?

5. 데살로니가전서 5:22절 말씀은 성도가 악한 것들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취하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가? 또 그 방법도 열거해 보라.

6. 로마서 12:9절은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고 말한다. 우리가 매일 접하는 세상의 악한 것들의 목록을 작성해 보라. 또 이런 것들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7. “내일 일을 계획함” 과 관련하여 야고보 사도는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약 4:15) 또 그 중요성을 설명해 보라.

8. 우리 삶에 있어서 현세와 내세에서의 그 결과를 생각해 보면서 사는 것이 왜 중요한가?(고후 5:10)